

사자 떠난 밀림... 왕좌 다툼 시작된다

<독일>

<월드컵>

FIFA 2위 브라질 vs 3위 벨기에 8강 격돌 네이마르 맹활약... 브라질 7회 연속 진출 벨기에 2실점 뒤 연달아 3골...짜릿한 8강



브라질 '네이마르'



벨기에 '펠라이니'

FIFA 랭킹 2위 '삼바군단' 브라질과 3위 '황금세대' 벨기에가 8강에서 격돌한다.

브라질이 3일 러시아 사마라 아레나에서 열린 멕시코와의 월드컵 16강전에서 2-0으로 이기며 8강에 진출했다. 네이마르가 1골 1도움으로 두 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최고 몸값' 선수의 위업을 보여줬다.

벨기에에는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진행된 일본과의 16강 경기에서 0-2의 승부를 3-2로 뒤집고 8강행을 확정했다. 경기 종료 직전에 나세르 샤텔리가 '극장골'을 터트리면서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했다.

브라질이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이르빙 로사노, 카를로스 벨라를 전면에 내세운 멕시코의 공세에 막혀 위기의 전반전을 보냈다. 그러나 후반 6분 몸이 풀린 네이마르가 움직이면서 분위기가 반전을 이뤘다.

수비수들을 중앙으로 몰고 간 네이마르는 왼쪽에 있던 윌리안에게 패스를 하면서 시선을 분산시켰다. 이어 골대앞 쇄도한 네이마르는 윌리안의 땅볼 크로스를 발끝으로 밀어 넣으면서 선제골을 만들었다.

멕시코가 골키퍼 기예르모 오초아의 선방으로 맞서면서 장과 방패의 싸움이 전개됐지만, 이번에도 네이마르가 웃었다. 후반 43분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은 호메르투 피르미누가 췌기골을 터트렸다.

경기는 그대로 2-0으로 끝나면서 브라질은 1994 미국 월드컵 이후 7회 연속 8강행에 성공했다. 모처럼 이름값을 발휘한 네이마르의 활약에 브라질은 포르투갈(4위), 아르헨티나(5위), 폴란드(8위), 스페인(10위) 등 우승 후보들이 줄줄이 탈락한 이번의 월드컵에서 여섯 번째 우승에 도전하게 됐다.

반면 멕시코는 1994년 미국 월드컵을 시작으로 7회 연속 8강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16강 징크스'에 올랐다.

FIFA 랭킹 61위 일본의 공세에 이번의 희생양이 될 뻔했던 벨기에에는 2실점 뒤 연달아 3골을 집어넣으면서 '벨레 스코어'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일본의 총총한 포백에 막힌 벨기에에는 원톱 로멜루 루카쿠의 헛심 공방 속에 답답한 전반전을 보냈다. 그리고 후반 시작과 함께 일본의 역습에 흔들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후반 4분 일본의 스루패스로 중원이 뚫렸고, 수비수 안 베르통언의 패스 미스까지 나오면서 일본 하라쿠치 겐키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3분 뒤에는 일본 아누이 다카시가 무회전으로 날린 중거리 슈팅이 그대로 골대를 통과하면서 0-2가 됐다.

그러나 선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던 베르통언이 후반 24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공을 헤딩골로 만들면서 대역전극의 신호탄을 쏘았다. 5분 뒤에는 교체 투입된 펠라이니가 역시 머리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양 팀 골키퍼들의 선방 퍼레이드 속에 후반 추가시간까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벨기에가 환상의 호흡으로 '극장골'을 만들었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토마스 메우니의 땅볼 크로스를 중앙에 있던 로멜루 루카쿠가 뒤로 흘리며 수비수들을 속였다.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쇄도하던 나세르 샤텔리가 8강행을 확정하는 '버저비터' 골로 경기 종료를 알렸다.

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벨기에에는 7일 오전 3시 브라질과 8강에서 격돌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네이마르, 비난 재운 환상골

멕시코전 1골 1도움...부진·부상 딛고 '이름값'

브라질 축구대표팀 간판 네이마르에게 지난 1년은 악몽 같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역대 최고 이적료(2억2200만 유로)를 기록하며 FC바르셀로나에서 파리생제르맹으로 이적했지만,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팀 동료 에딘손 카바니와 페넬티키 키커 자리를 놓고 경기 중 말다툼을 하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그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악의 불운도 겪었다. 그는 지난 2월 경기 도중 오른쪽 종족골이 부러지는 중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약 3개월간 재활 훈련에만 전념하다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개막 직전 복귀했다.

몸 상태는 좋지 않았다. 훈련 부족으로 동료들과 팀 워크에도 문제가 있었다.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스위스와 경기에서 문제점은 그대로 표출됐다. 네이마르는 예전의 경기력을 뽐내지 못했고, 상대 팀의 집중 경계에 파울만 10차례나 당했다.

그는 조별리그 2차전 코스타리카와의 경기에서는 상대 선수들의 몸싸움에 민감하게 대응했다.

경기 중 상대 선수를 향해 심한 욕설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네이마르는 이날 후반 추가시간 췌기 골을 넣은 뒤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만, 브라질 언론은 여전히 싸늘했다. 몇몇 매체는 네이마르가 신경쇠약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 최대 방송사인 글로부TV의 질타에 거칠게 반박하는 등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심신이 지쳐있던 네이마르는 3일 열린 멕시코와의 16강전에서 다시 일어났다.

전반 초반 상대 팀 수비벽에 막혀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전반전 중반 이후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불운과 불행의 기운을 깨끗하게 견어냈다.

후반 6분 왼쪽 측면에서 페넬티서클로 돌파한 뒤 비어있는 왼쪽 공간으로 쇄도하던 팀 동료 윌리안에게 절묘하게 패스했다. 이어 공을 이어받아 공을 골대앞 밀어 넣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골 기록이었다.

후반 43분엔 왼쪽 측면을 돌파해 팀 동료 피르미누의 골을 어시스트했다.

네이마르는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르헨티나 리오넬 메시가 떠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뒤늦게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오늘 광주 온다

광주FC 경기 관전...모교에 장학금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기성용이 4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을 찾는다.

광주 FC는 "4일 오후 8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EB하나은행 K리그2 2018 15라운드 서울이랜드와의 경기에 기성용 선수가 방문한다"고 3일 밝혔다.

광주 FC의 개인 최대 주주이기도 한 기성용은 경기 전에 지난 6월 열린 제73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광주 FC U-18팀이자 자신의 모교인 금호고에 장학금을 전달한다. 또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추첨을 통해 친필 사인볼도 선물할 예정이다.

광주 출신인 기성용은 그동안 고향 축구 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

2010년 광주 FC 창단 당시 개인 최대주주(4000주)이자 홍보대사 역할을 해온 기성용은 몇 차례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고향팬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 광주시와 모교 금호고, 소외계층, 구단 등에 후원도 이어왔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맡겼다.

한편 지난 6월 1일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센추리 클럽(A매치 100경기)에 가입하는 등 한국을 대



표하는 선수로 활약해온 기성용은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日 짧았던 8강의 꿈

벨기에에 2-3 역전패...아시아 유일 16강·월드컵 최다 6골 기록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아시아 5개국(한국·일본·이란·호주·사우디아라비아) 가운데 유일하게 16강에 진출한 일본이 '난장' 벨기에와 8강전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월드컵 여정'을 마무리했다.

일본은 갑작스러운 사령탑 교체 속에 8년 만의 16강 진출과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6골)까지 기록하는 기쁨을 맛봤다. 다만 일본은 폴란드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극단적인 시간끌기 작전으로 체면을 구겨야만 했다.

◇사령탑 교체가 결국 보약...역대 세 번째 16강 일본 축구는 러시아 월드컵 개막을 2개월여 앞두고

사령탑 교체라는 초강수를 뒀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영입했던 멕시코 출신 하비에르 아가레 감독이 이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질됐고, 6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이끈 필호지치(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감독은 월드컵 최종예선 이후 A매치 성적이 좋지 못했다.

니시오 감독은 혼다 게이스케, 가가와 신지, 오카자키 신지 등 베테랑을 다시 불러모아 '평균 28.17세'로 역대 최고령 팀을 꾸렸다. 브라질 월드컵에 나선 선수만 11명이었다.

니시오 감독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콜롬비아의 수비수 카를로스 산체스가 전반 2분 56초 만에 핸드볼 반칙으로 퇴장당하는 행운 속에 2-1 승리를 따내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시간끌기 논란' 아쉬움 속에 다양한 기록

일본은 '시간끌기 논란'으로 해외 언론의 못매를 맞았다. 무엇보다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 돌리기 축구로 추가 실점을 막는 모습은 전세계 팬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이 세네갈을 '페어플레이 점수'로 16강에 진출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해외 언론들도 지는 팀이 볼 돌리는 상황을 보고 '당혹스럽다', '웃음거리'라는 조롱을 보내기도 했지만 일본은 16강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논란 속에 16강에 진출한 일본은 벨기에를 상대로 2-0으로 앞서며 선전했지만 끝내 3골을 내주고 8강 진출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